



Eighth Army Public Affairs Office

Phone DSN (315) 755-8275 / Local 0503-355-8275



FOR IMMEDIATE RELEASE

Media Release: 20250612-01

JUNE 12, 2025

영북고등학교 학생들, 캠프 험프리스 방문... 한미 부사관단에 대한 이해 증진

대한민국 평택 캠프 험프리스 - 포천시 인근 영북고등학교 부사관학과 학생들이 6 월 11 일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미 8 군 민사처(G9)가 주관한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. 이번 행사는 미래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미 육군 부사관단의 조직 구조, 핵심 가치, 교육 과정 등을 소개하고,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.

학생들은 밴달 훈련센터와 화이트먼 부사관학교를 방문하고, 스파르탄 식당에서 중식을 함께한 뒤 미 8 군 본부 앞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. 특히 미 육군 부사관들과 카투사 장병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군 간의 연합 교육 환경과 상호 협력의 실제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.

“이번 행사는 미래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들에게 투자하는 동시에, 미 8 군이 근무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입니다.”라고 제프리 조 미 8 군 민사처 부처장(소령)은 말했다. “한미동맹의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교류는 향후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들에게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. 지난 75 년간 한미 양국 장병들은 한반도에서 함께 서서 위협을 억제해왔으며,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이끌 인물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.”

영북고등학교 부사관학과 3 학년 김찬솔 학생은 “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직접 둘러볼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고, 미군 장병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근무하는지 볼 수 있어 미군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”며 “앞으로 제가 부사관이 되어 미군과 함께 근무하게 될 때 이번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

영북고등학교 학생들, 캠프 험프리스 방문... 한미 부사관단에 대한 이해 증진

이번 방문은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미 8 군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, 한미동맹 기반의 인재 양성과 미래 군 리더십 개발을 위한 전문성 중심의 민군 교류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.

문의: 미 8 군 공보실

usarmy.humphreys.8-army.mbx.public-affairs-office@army.mil

사진설명 (3 건):



대한민국 육군 김동민 일병이 2025 년 6 월 11 일, 캠프 험프리스 화이트먼 부사관학교에서 영북고등학교 부사관학과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세션 중 대한민국 육군 생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 본 견학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, 예비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군 생활과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. (사진: 미 육군, Staff Sgt. Neil Mclean)



Eighth Army Public Affairs Office

Phone DSN (315) 755-8275 / Local 0503-355-8275



FOR IMMEDIATE RELEASE



영북고등학교 학생들, 캠프 험프리스 방문... 한미 부사관단에 대한 이해 증진

2025 년 6 월 11 일, 캠프 험프리스 내 유엔군사령부 기념비 앞에 선 영북고등학교 부사관학과 학생들. 학생들은 미 8 군 본부 등 주요 부대 시설을 견학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. (사진: 미 육군, Staff Sgt. Neil Mclean)



2025 년 6 월 11 일, 캠프 험프리스 내 미 8 군 본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영북고등학교 부사관학과 학생들. 본 견학은 예비 대한민국 군 장병들에게 한미 군사 협력 및 군 생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 (사진: 미 육군, Staff Sgt. Neil Mclean)

-끝-